

영암농업대학, 무화과 입학생 맞아

농업기술센터서 33명 입학생 제 17기 입학식 열어 지역 특화작목 무화과 전문농업경영인 양성 목표



영암군이 19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제17기 영암농업대학 입학식'을 열고, 33명의 입학생을 맞았다. 지역 특화작목 무화과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는 영암농업대학은, 11월까지 과정당 총 23회 100여 시간의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이론과 현장실습, 견학, 병해충 방제 등 무화과 재배 기술은 물론이고, 마케팅과 경영관리 등 농특산물 유통·판매 전문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지난해 '영인농업대학'이던 이름을 영암농업대학으로 변경한 학교는, 지금까지 61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졸업생들은 농업 각 분야에 나서 전문가로 성장하며 지역농업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농업대학 입학에 축하드린다. 무화과 주산지 영암군은, 영암 무화과 산업 발전을 위해 3개년 계획을 세우고, 고품질 무화과 생산, 가공상품 개발, 품종 연구 및 개량, 가공유통 소득을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암군이 지원하고, 농업대학 학생 여러분이 꽃피우는 무화과산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기자



무안군, 건강지도자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무안군은 지난 18일 남악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2024년 건강지도자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산 군수를 비롯해 건강지도자 23명이 참석하였으며, 위촉장 수여, 임원 선출과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안내, 건강지도자의 역할 등 교육도 실시하였다.

건강지도자는 한 해 동안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건강에 해로운 환경 개선 및 주민과 함께 건강생활을 실천하며 지역의 건강 문제 발굴, 건강 캠페인 수행, 건강동아리 활성화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무안=이기성기자

'한차례 제동' 목포시내버스 노선권 인수 속도낸다

시의회 도시건설위, 수정동의안 가결 "계약 지연 따른 시민불편 감안한 결정"

목포시의회에서 한차례 제동이 걸렸던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 노선권 인수 등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일 목포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목포시가 제출한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수정동의안을 가결했다. 수정동의안은 지난해 7월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목포시내버스의 정상화를 위한 노선권 인수와 차고지 및 시내버스 인프라 임대, 시내버스 대표의 7억원 사회환원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목포시내버스 노선권 인수는 지난 1월 인수금액 210억원이 시민정서에 부합하는 이유 등으로 시의회에서 부결되면서 계약 지연에 따른 시민불편이 우려됐다. 노선권의 경우 목포시와 시의회, 시내버스 업체 등 3곳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산출한 평균금액 210억원이 인수금액으로 제시됐으나 시의회가 부결하고 재협상을 요구한 것이다. 목포시는 시의회에 요구대로 시의회 추천 변호사와 안전도시건설국장을 공동단장으로 협상단을 재구성하고, 태원·유진운수와 재협상에 나섰다. 재협상 과정에서는 계약서 조항별 세부사항과 노선권 감정평가 관련 규정의 적법성, 감정평가사 면담 등을 통해 평가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목포형 대중교통시스템 가동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측이 시의 요구 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노선권의 평가방법과 금액도 감정평가사와 대면 질의·응답을 통해 적정함을 확인했다. 목포시는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수정동의안을 마련해 3월 임시회에 제출했고,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원석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동의안이 시민 눈높이에 맞다고 볼수 있으나 계약 지연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시민불편을 감안한 결정"이라며 "향후 추진 예정인 관련 업무는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부취재본부송준표기자



함평군, 2024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함평군이 1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과 산업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2024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함평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군 소속 현업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현업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등, 노사협의체 및 안전보건협의체와 같이 중

대재해처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 2023년도 정기 위험성 평가 조치결과 보고 ▲ 2023년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활동사항 보고 ▲ 2024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계획 심의 등 안전보건 분야 주요 사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함평=김광훈기자

신안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시행

신안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21일간) 시행한다. 군은 약 299,981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증을 완료하고 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의견 제출 방법은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으면 토지소유자나 그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061-240-8283)에 제출하면 된

다. 의견 제출된 필지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신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8일 최종 결정 및 공시할 방침이다.

신안=이덕주기자

영광군, 2025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

영광군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주관하는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위해 오는 4월 19일까지 신재생에너지(태양광·태양열) 설치 희망자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본 사업은 신재생에너지(태양광·태양열) 설비를 주택과 상업·공공 건물에 설치하여 전기

와 열을 공급하는 것으로 주택에 태양광(3kW)·태양열(13.6㎡) 설비를 설치할 시 자부담은 13%(120~150만원)로, 월 약 5만원 내외의 전기요금(연료비)을 절감할 수 있어 군민들의 사업 참여 호응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다. 해당 지역은 영광군 전체 읍·면(낙월면: 태양광 제외)이다.

영광=서희권기자

**아세요?
한수원이요즘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